

자유로운 휴가로 일과 가족을 모두 챙기는 부부 퀵플렉서 이야기

2024. 8. 7.

쿠팡의 라스트마일 배송을 책임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oupan Logistics Services, 이하 CLS). CLS 배송협력업체 소속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님들이 CLS 퀵플렉서입니다. CLS 퀵플렉서로 근무하는 김장희, 유정은 부부는 배송업무 스케줄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챙기고 있습니다. 쿠팡 뉴스룸이 직장 생활과 개인 사업을 뒤로 하고 퀵플렉서로 전업한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며 김장희, 유정은 부부는 퀵플렉서로서 처음 배송 업무를 시작했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두 분은 퀵플렉서가 되기 전에 직장에서 근무한 적도, 자영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막 적응하던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 입사하는 동료들에게 업무 조언을 해줄 수 있을만큼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김장희님은 '정해진 루트에 따라 배송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주 마주하는 고객과는 인사를 나눌만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고객들과의 교류가 일의 보람을 더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정은님도 "같은 아파트에 배송을 나가니까 주민들과 친해지게 되고 물건 언제 오는지 제게 물어보시기도 해서, 고객을 위하는 느낌이 들고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퀵플렉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김장희님은 자유로운 시간 관리를 꼽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쉴 수 있어 직장에 근무할 때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일하는 김장희님은 아침에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정은님도 퀵플렉서의 유연한 근무 환경 덕분에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퀵플렉서로 일하면서 가족여행을 가는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아침에 아들이 잘 때 출근했다가 잘 때 들어가니까 같이 시간 보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야간에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놀 수도 있어요.” - 김장희님



대체 인력이 있어 배송기사들이 언제든지 쉴 수 있다는 점도 퀵플렉서의 또다른 장점이라고 합니다. 유장희님은 ‘퀵플렉스가 지금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힘주어 말하며, 퀵플렉서 덕분에 꿈꾸던 워킹맘의 삶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야간과 주간으로 나뉘어서 일하는 이유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부부가 아이를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와 밥 먹고 놀다가 보면 신랑이 와서 같이 시간 보내다가 아이 재우면 신랑이 출근하는 거죠.” - 유정은님

부부는 수입 면에서도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장희님은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2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고, 유정은님도 “일한 만큼 수입을 얻기 때문에 맡은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부는 쿼플렉서의 또 다른 장점으로 적은 업무 외 스트레스를 꼽았습니다.

“회사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봤지만, 쿼플렉스 배송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업무 외적인 요소로 인한 스트레스를 정말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한 건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게 또 제 책임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없다고 할까요?” - 유정은 님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제가 능력이 있어도 인센티브를 받기가 어려운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쿼플렉서는 제가 좀 더 일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예요.” - 김장희 님



두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도 쿼플렉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유로운 휴가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일하는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정은 님은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기분이 최고라고 합니다. 부부에게 쿼플렉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수입도 얻게 해준 지금 삶의 원동력입니다.



인생 최고의 플렉스로 '퀵플렉스'를 꼽은 김장희, 유정은 부부. 부부는 퀵플렉스의 유연한 근무제도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업무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덕분에 CLS 퀵플렉서 분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처럼, 퀵플렉스의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위해 CLS는 앞으로도 영업점과 함께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